

## ‘실사의 날’ 밝혔다... 감동·확신을 주자

### 부지 매입 끝난 국립광주과학관 정부, 뒤늦게 민자 전환 검토



### ‘2013 U대회 광주로’

#### FISU 실시단 도착

‘실사의 날’ 밝혔다. 감동과 확신을 심어라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시단이 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관련기사 3·4면>

### 시내 돌며 경기시설 도시 여건 살펴

### 내일 밤 금남로 축제 시민 열기 평가

스페인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그리스, 세르비아, 터키, 남아공, 일본 집행위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실시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광주에 도착, 신양파크호텔에 여장을 풀 뒤 2일부터 광주 일대를 돌아보며 경기시설과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FISU 사무국 미디어담당관도 동행, 현지 실사 표정을 FISU 본부에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번 실사는 지난 달 스페인 비고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시는 전 경기장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의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범시민적 유치 열의 등을 내세워 실시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실사단은 2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여흥철(제주)·김수영(양곡)·이은철(사격) 등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과 환담을 나누고, ‘About 광주’를 주제로 한 모형을 보며 광주시로부터 전반적인 인프라를 보고받는다.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U대회 개요와 재정, 스포츠조직 및 경험 등에 관한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PT)을 받는다.

저녁에는 5·18의 역사적 현장인 금남로에서 펼쳐지는 광주시민 축제에 참석, U대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생생한 열기를 체험한다.

3일에는 경기장에 대한 실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월드컵경기장과 조산대와 호남대 등 대학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선수촌을 비롯한 숙박시설 등에 대한 2차 PT 보고를 받는다.

나흘째인 4일에는 의료서비스와 안전 등을 소개하는 3차 PT를 받은 후 열기를 타고 광주 일대와 서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둘러본다. 실시단은 이날 오후 6시4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취재진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실사 결과를 브리핑한 뒤 5일 출국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박광태 광주시장의 최종 현장 점검을 끝으로 ‘감동의 실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실시단 방문기간인 1일은 근로자의 날이고, 3~4일은 주말과 휴일, 5일은 어린이날이 겹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번 실사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이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열의는 평가요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인 만큼 실사기간 중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숙소 점검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실시단의 광주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시 간부들이 실시단이 묵게 될 신양파크 호텔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위정욱기자 jrwi@kwangju.co.kr

##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 광주 개최 땀 개·폐회식 동시 입장 등 ‘평화 프로젝트’

광주시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의 광주 개최가 확정될 경우 남북 단일팀 구성과 개·폐회식 동시 입장, 공동 훈련 등 남북한의 다양한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 아테네올림픽,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2003 부산아시아대륙대회,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식 때 동시 입장한 바 있다.

또한 광주 U대회의 성과를 미래 세대에 전하고 FISU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시는 U대회 광주 개최가

확정될 경우 남·북 단일팀 구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폐회식 동시 입장, 공동 훈련 등 남북한 다양한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 아테네올림픽,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 2003 부산아시아대륙대회,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식 때 동시 입장한 바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FISU측에 광주 U대회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미·북한을 잇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된다.

즉 광주 U대회를 통해 이념과 종교, 인종, 지역간의 벽을 넘어선 화합

의 무대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명분, 설득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같은 구상을 지난 2월 유치신청서(Bidfile)를 통해 FISU측에 전달했으며 1일 광주를 방문하는 실시단과 오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개최지 결정을 위한 총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한 2013 U대회 광주 개최가 확정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관’을 건립해 FISU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하계스포츠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시 강력 반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부지매입까지 끝난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을 2009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광주시에 총사업비 887억원 규모의 국립광주과학관을 BTL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 광주와 대구 국립과학관(1천187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중인 부산과 강원 역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광주·대구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 2007년 초 수도권 외 영호남지역에도 국립과학관을 만들자는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광주는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고 대구는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다. 부산시와 강원도 역시 지난해 뒤늦게 뛰어들어 국립과학관 건립을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지만 BTL사업으로 전

▲ BTL(Build- Transfer-Lease)=민간부문이 우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가·지자체·시설운영 전문회사 등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환될 경우 민간회사가 우선 국립과학관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로 이관하고, 이를 시설운영 전문회사 등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수익증대 사업에만 치중해 과학관 기능이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사업시기도 당초보다 2년이상 지연돼 20011년 완공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시 북구 오동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9만8천248㎡(2만9천720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7천193㎡(5천201평)의 건물을 지어 기초과학관·어린이 체험관·지역산업관·천지인학관 등을 배치하며 2009년 5월에 착공, 2011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윤정욱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소연씨 허리 통증

### “심각한 상태 아니다”

#### 항공우주의료원

지구 착륙 당시 받은 충격으로 목, 어깨,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온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검진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주치의인 정기영 항공우주의료원(이하 함의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밀 검진 결과 이씨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경미한 목통증·부위 열좌와 가슴등뼈 타박상이 있는 상태이며 허리등뼈 통증에 대한 원인도 밝혀졌으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현재 이씨는 정밀의료 검진과 병행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치료와 한방치료 등 복합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식사는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의원은 이소연은 2일 이씨의 정밀검사에 대해 재평가한 후 치료 방향을 잡을 예정이며, 향후 외부활동 여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 귀환 12일이 지났는데도 이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대통령 면담 등 대외활동을 전면 취소해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주년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창립 50주년, 남양건설

비전 2020으로 남양축전과 함께 새미래를 준비합니다.

VISION2020 VISION2020

남양건설

1588-5550